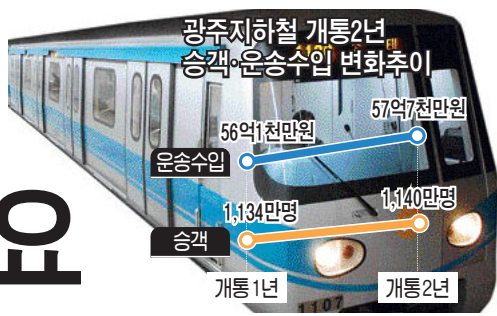


광주지하철 개통 2년 승객이 늘었어요



개통 2년을 맞은 광주지하철 이용 승객수와 수입이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광주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지난 2004년 4월28일 개통 이후 2년 차 이용 승객수는 1천140만명으로 1년차 승객 1천134만명보다 6만명(0.5%)이 늘었다.

운송수입은 57억7천만원으로 첫째 해 56억1천만원 보다 1억6천만원(2.8%) 증가했다.

그러나 연도말 기준 적자 폭은 경영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2004년 190억원에서 지난해 240억원으로 커졌다. 수송 분담률은 1.71%에 그쳐, 대중교통의 핵심 수단이 되기에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1,140만명 이용 적자 240억으로 늘어

광주지하철은 개통 이후 지금까지 총 19만7천736회(206만5천990km)를 운행, 연인원 2천270만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지하철에서 탑승객이 가장 많은 역은 상무역(일평균 승객 4천801명)이며, 탑승객이 가장 적은 역은 양동시장역(일평균 승객 1천469명)으로 나타났다. 또 하루 평균 가장 많은 승객 수를 기록한 날은 폭설이 내린 지난 해 12월24일로 평일 이용객 보다 배 이상 많은 총 6만4천명이 지하철을

탔다.

광주지하철 운영사인 도시철도공사는 고객서비스를 위한 문화지하철을 표방하고, 역사 등에서 연 800여 차례의 각종 문화공연과 전시회 등을 가져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도시철도공사는 개통 2주년을 맞아 지하철 시민서포터즈 발대식을 갖고 '노사공동 지하철 타기' 대신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고객 늘리기에 주력하기로 했다.

광주도시철도 오행림 사장은 "1호선 2구간이 2008년 개통되고 지상고가(高架) 경전철 방식으로 예상되는 2호선도 조기착공되면 승객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광주 상무·첨단지구 '성매매 적색지역' 지정

관할청	성매매 적색지역	종속업소 개수	선정 이유
전남청	서구 치평동 롯데마트 일대	594	종속업소 밀집 지역
	북구 쌍암동 빅마트 일대	413	종속업소 밀집 지역
전북청	덕진구 이중택지 지구	226	신도시로 대형 종속업소 밀집 지역

사상행위 업소·휴게텔·퇴폐이발소 등 신·변종 성매매 업소가 밀집한 지역이다.

성매매 적색지역은 안마시술소·유

'적색지역' 11개업소 적발·38명 입건

'성매매 적색지역'으로 지정된 광주 상무지구와 첨단지구에 대해 경찰이 집중 단속을 나사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27일 스포츠마사지 업소에 취업한 뒤 손님들에게 화대를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법률 위반(여·27)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김씨 등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오모(36)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업주 기모(39)씨를 지명수배했다.

햇님은 구름뒤로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음

4월 28일 (음 4월 1일) 전국날씨

지역	날씨	기온
광주	맑은구름	7~21℃
대전	맑은구름	7~18℃
부산	맑은구름	11~19℃
서울	맑은구름	7~20℃
대구	맑은구름	6~21℃
전주	맑은구름	4~21℃
충주	맑은구름	4~20℃
청주	맑은구름	4~21℃
경주	맑은구름	6~20℃
대전	맑은구름	4~21℃
전주	맑은구름	5~18℃
광주	맑은구름	6~20℃
부산	맑은구름	6~21℃
대구	맑은구름	4~22℃
전주	맑은구름	6~21℃
충주	맑은구름	4~22℃
청주	맑은구름	6~21℃
경주	맑은구름	6~21℃

서울날씨: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0.5~1.0m, 먼바다=남서~서풍 파고 1.0~1.5m

부산날씨: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0.5~1.0m, 먼바다=서~북서풍 파고 1.0~1.5m

목포 날씨: 목포 밀물 < 02:20, 썰물 < 07:35, 14:26, 19:43

여수 날씨: 여수 밀물 < 09:15, 썰물 < 03:07, 21:46

해돋이 05:45, 해질 19:15, 달돋 05:39, 달질 19:58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민없이 131 < 광주지방기상청 >

날짜	29(토)	30(일)	5/1(월)	2(화)	3(수)	4(목)
날씨	☀	☀	☀	☀	☀	☀
최저/최고	11/19	14/22	13/25	12/25	13/26	14/23

빈곤층 의료급여제 '허점' '의료 쇼핑'·과잉 진료 등 비용 급등 부추겨

보건부, 집중관리 나서

의료급여제에 대해 허점이 노출된다는 판단이다. '의료 쇼핑'으로 불리는 의료 과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복지부 판단이다.

◇ 실태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176만2천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2년의 142만1천명에 비해 23.9% 늘어난 수치다. 진료비도 2002년 1조9천824억원에서 지난해 3조1천765억원으로 60.2%나 늘었다. 진료비 증가는 수급권자 확대(32.7%), 급여 확대, 의료수가 인상(25.8%), 내원일당 진료비 증가(23.7%), 1인당 내원일수 증가(19.7%) 등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진료비가 많이 드는 65세 이상 노인 수급자가 37만14천명에 45만2천명으로 늘어난 것도 한 몫했다. 노인 진료비는 7천363억원에서 1조2천173억원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수급권자 1인당 진료비도 137만원에서 192만2천원으로, 1인당 진료일수는 174일에서 219일로 각각 늘어났다.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하면 의료급여 수급자의 입·내원 일수는 1.8배이고 진료비는 2.5배에 달한다. 진료비 급등에 따라 정부 예산은 지난해 4천256억원이 부족했다. 이 바깥에 의료기관에 지급해야 할 돈을 481억씩이나 체불하기도 했다.

◇ 개선책 = 수급권자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연간 진료 일 500일 이상인 특별관리 대상자 28만4천명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다. 과잉·부적절 진료 이용자의 리스트를 작성,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는 의미다.

자가체불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비 편차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울산은 지난해 수급권자 1인당 214만3천원을 사용한 반면 광주는 141만7천원에 그쳤다. 울산시 울주군은 267만5천원이 든 데 비해 광주 북구는 137만 원으로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복지부는 또 중·장기 과제로 주치의 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기로 했다. /서울=임동욱기자 tuim@



교통경제인 단체 협 창립

'광주시 교통경제인 단체협의회(회장 조재래) 창립식이 27일 오후 광주시 서구 치평동 상무리초컨벤션웨딩홀 3층에서 정남준 광주시장 권한대행 등 기관 단체장과 회원 등 5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교통경제인 단체협의회'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조합 등 광주시내 14개 교통 관련 단체 회원 1만여명의 권익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됐다. /나경우기자 mjna@kwangju.co.kr

윤봉길의사 친필 '광복가' 공개

'매헌(梅軒) 윤봉길(尹奉吉) 의사 기념사업회'는 중국 상하이 홍커우(虹口) 공원 의거 74주년을 이틀 앞둔 27일, 윤 의사가 조선 청년의 각성을 촉구하고 조국 독립전쟁 참여를 당부하며 썼던 '광복가(光復歌)(사진)의 친필을 일반에 공개했다.

이 글은 1932년 4월27일 홍커우 공원을 답사한 뒤 숙소인 동방공우(東方公寓)에 돌아와 백범(白凡) 김구(金九) 선생의 요구로 수첩에 쓴 것으로 흘러 쓴 필체와 고친 자국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다음은 '광복가'의 전문.

<피끓는 청년(靑年)들은 아가 無窮花(무궁화) 三千種(삼천리) 우리江山(강산)에 왜놈이 왜 와서 왜걸레냐 피끓는 청년(靑年)들은 모 르는가 되불 되외서 되기는데 왜놈은 와서 왜 안니가

나 피끓는 靑年(靑年)들은 잠자는가 東天(동천)에 서색(曙色)은 漸(점점) 밝아오는데 造容(조용)한 야침이나 狂風(광풍)이 일어날 땐 피끓는 靑年(靑年)들은 準備(준비)하세 軍服(군복)입고 총 메이고 칼 들며 軍樂(군악) 喇叭(나팔)에 발맞추어 行進(행진)하세 >

연필뉴스

단어 100개 알아듣는 강아지 로봇 나왔다

로봇 제조업체인 '다사테크'가 개발한 지능형 애완용 강아지 로봇 '제니보'. 키 30cm·길이 33.4cm·몸무게 1.5kg 크기 큰 볼테리어종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이리온' '얏야' '쉬하자' 등 100개 단어를 알아듣고 따라한다. 머리나 등, 열구리를 쓰다듬어 주거나 핑크색 공을 보면 좋아하는 눈빛을 한다. 장애물이 앞에 있으면 돌아가고, 춤을 추거나 카메라로 사진까지 찍기도 하며 명령어를 무선으로 전달받아 다리·머리를 높거나 낮게 걸거나 서있는 자세를 바꾸기도 한다. 17개의 소형 모터와 CPU, 컴퓨터의 명령을 무선으로 받는 연결장치 '블루투스' 등이 내장돼 있다. /연필뉴스

제32회 보성다향제

보성군농업기술센터

5월 6일~9일 보성다향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기간: 5월 6일(토) ~ 5월 9일(수) 4일간

장소: 보성군농업기술센터, 보성군농업기술센터 부속

주최: 보성군농업기술센터

주관: 보성다향제 추진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농림부, 전라남도, 보성군농업기술센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행사구분: 다양한 지역 특산물 전시·판매

행사내용: 보성군 특산물 전시·판매, 보성군 특산물 전시·판매, 보성군 특산물 전시·판매

문의: 보성군농업기술센터 (061-830-0221) | 홈페이지: www.boseong.go.kr

보성군농업기술센터

5월 6일~9일 보성다향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기간: 5월 6일(토) ~ 5월 9일(수) 4일간

장소: 보성군농업기술센터, 보성군농업기술센터 부속

주최: 보성군농업기술센터

주관: 보성다향제 추진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농림부, 전라남도, 보성군농업기술센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행사구분: 다양한 지역 특산물 전시·판매

행사내용: 보성군 특산물 전시·판매, 보성군 특산물 전시·판매, 보성군 특산물 전시·판매

문의: 보성군농업기술센터 (061-830-0221) | 홈페이지: www.boseong.go.kr